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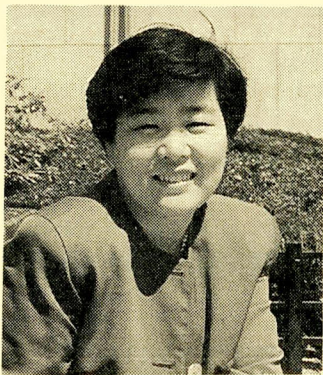
이야기를 위주로 꾸며지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날의 주제를 풀어갈 중심 출연자(흔히 메인연사라고 부른다)이다. 그래서 구성작가들은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들이 사람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친척이나 학교동창은 물론 이웃에 사는 사람, 심지어는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파고든다. 자기가 나오기 싫은 사람은 하다못해 다른 사람이라도 소개해 줘야 할 판이다. 오죽하면 이것을 놓고 '인신매매'라는 말이 나올까.

이 프로그램을 한 열달쯤 하다 보니 나는 나름대로 사람을 척 보고 프로가 제대로 진행되게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잣대는 학력이다.

대개 고학력자들은 말귀를 빨리 알아들어서 좋다. 작가나 연출가가 만나서 얘기한 결과를 들어보면, 하나를 물어보면 두세 가지를 앞질러 얘기하고, '문제의 핵심이 뭐군요'라고 나름대로 분석까지 한다는 것이

다. 즉, 프로그램의 주제와 전체 구성,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감도를 내려다보듯 금방 파악한다.

그러나 이들은 일단 방송이 시작되면 교과서적인 정답만을 이야기한다. 몇 가지 형식으로 질문을 바꾸어도 앵무새처럼 같은 답이 나온다. 아무리 개인



적인 문제를 물어봐도 일반화시켜 이야기하기 일쑤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 안할 수 없는 때에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아는 사람의 경우인데'라는 단서를 빼놓지 않는다. 김이 꽉 새는 순간이다. 그가 리포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례자로 나온 것인 만큼 자신

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서 공감을 일으켜야 하는데...

반면에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방송에 출연해 달라'고 하면 우선 깜짝 놀란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데 나가냐',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민망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질문이

수다의 사회학③

99. 10. 11

일상적인 표현이 주는 편안함

오숙희/KBS - TV '집중토론 - 오늘의 여성' 진행자

시작되면 거미줄처럼 술술 이야기가 풀려나온다. 우리들이 눈을 반짝이며 '바로 그런 얘기가 우리가 원하는 거다'라고 하면 아주 의아해하면서 출연을 약속해 준다.

방송 당일에 만나기로 약속한 휴게실에 가보면 방금 미장원에서 나온 듯한 머리손질에

최선의 옷차림을 하고 나온 수줍은 듯한 '아줌마' 등이 단박에 눈에 띈다. "간밤에는 잠이 다 안 옵니다. 심장도 뛰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처음에 텔레비에 나간다고 하니까 못 미더워하고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잘하고 오라고 응원이 대단해요. 막내

놈은 학교 친구들한테 '올 엄마 텔레비에 나온다'고 다 말해 왔으면서 신이 났어요... 아휴, 잘 해야 될텐데...' 연신 손수건을 꼬기작거리면서도 어떤 기쁨에 들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내게 불끈 어떤 사명감을 느끼게 한다.

"걱정하실 것 없어요. 이웃

집 젊은 애기엄마가 마실와서 수다떠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랑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텔레비전 별 거 아니에요. 저도 침에는 떨었는데요. 자꾸 해보니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할 때 보는 사람도 잘한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떨지만 많이 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 말은 그간 내가 직접 겪은 바에서 나온 소신이다.

도리어 생방송이 시작되면 처음엔 긴장하는 듯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원색적인' 표현이 거침없이 섞이면서 이들의 이 기 붓물이 터진다. "그럴 때는

남편이고 자식새끼고 다 쳐다보기 싫어지지요.", "그럼요, 명색이 사내꼭지인데 안 그런겠어요?" 이런 식의 표현은 객석은 물론 시청자들까지도 웃게 만든다.

그뿐이 아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그런 경우에는 남편과 자식에게 대해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런 게 한국 남자의 보편적 특성 아니겠어요?"하는 표현보다 훨씬 사람들의 마음속에 쉽고도 분명하게 들어가 박힌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고상함이나 방송의 품위를 들먹거리면서 '수다적인 표현'이 천하다고 꼬집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양프로보다 드라마나 오락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것은 사실은 일상적인 수다가 녹아 있는 데서 오는 편안감과 공감이 아닐까? 일부 고학력자들이 방송에서 유연성없이 굳어지는 것도 이런 고상함이나 품위라는 터울에 갇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